

텃밭 딸린 빈농가 리모델링... 제2의 인생 만끽



이형문(74)·김인숙(71)씨 부부가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다. 지난해 8월 강진에 정착한 이씨 부부는 빈집을 리모델링 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제 2의 행복한 삶을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태평양 꿈의 섬 피지에서 강진으로 역 이민인 이형문(74)·김인숙(71) 부부가 인심좋은 소문난 한림마을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산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역 이민으로 남도 정착 강진 칠량면 이형문·김인숙 부부

“욕심만 버린다면 돈 한푼 없이도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남태평양 꿈의 섬 피지에서 역 이민인 이형문(74)·김인숙(71)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심좋은 강진군 칠량면 한림마을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그런데 이씨 부부의 전원생활 정착기는 다소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전원생활을 하려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데 1억~2억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들 부부는 빈집을 리모델링 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제야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찾았다”고 말하는 이들 부부는 이곳에 정착한 뒤 책도 펴내고, 바쁜 삶에 쫓겨 미뤄왔던 독서와 바둑, 운동 등 그들의 취미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씨 부부가 요즘 누리는 일상은 도시에서 사는 노 부부들에겐 하나같이 부럽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맑은 공기속에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산책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나누는 막걸리 한잔, 그리고 손수 가꾼 과일이며 채소를 따다가 푸짐하게 올린 밥상..

이씨는 시골에 온 뒤의 자신의 삶을 ‘무념무상’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씨는 “욕심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살 수 있는 이곳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시골 생활이 단조롭고 심심하지 않냐고 묻자, 두 사

람은 손사래를 쳤다. “하늘의 구름 한점,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소리, 산들바람 모든 게 하루하루가 달라요. 길가에 난 잡초를 보세요. 비올 때 다르고, 맑을 때 다르고, 바람 불 때 또 다르죠. 잡초 하나만 바라봐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요즘 아내 김씨는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 남편 이씨는 지난해 11월 전원생활 4개월만에 자신의 삶을

피지 생활 접고 지난해 4월에 귀국
경관 좋고 넉넉한 인심에 강진에 등지
책 내고 독서·바둑... “돈 없어도 즐겁죠”

수평형식으로 엮은 ‘흔적을 남긴 유산’이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분석도 담겨있다. 초판 2천권이 모두 팔려나갔고, 현재 또 다른 책의 집필도 구상중이다.

이같이 스트레스 없는 전원생활 덕분에 아내 김씨는 젊은 시절부터 앓아온 호흡기 질환도 사라졌다고 한다.

사실 이들 노부부가 남반의 섬인 피지 생활을 접고 빈집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선 큰 결단이 필요했다. 경남 통영에 고향인 이씨는 여수고를 거쳐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아내 김씨와 함께 중·고교 교사로

재직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정신이 남달랐던 이씨는 7년간의 교사 생활을 접고 해외업무가 가능한 대한석유공사로 직장을 옮겼다. 이후 무역업으로 전환한 이씨는 지난 1994년 모든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축산 계통을 전공한 아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낯선 피지를 선택했다.

하지만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2억원의 이민 자금을 이민업자에게 모두 사기 당했고, 머나먼 타지에서 빈털터리 신세에 놓이게 됐다고 한다.

다행히 현지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로, 여행 가이드 등의 생활을 하며 피지에서 자리를 잡게 됐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갔다. 하지만 피지 생활에 적응한 아들 때문에 한국행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지난해 4월 피지에 사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온 이씨는 전국을 누비며 마지막 노년생활을 지낼 곳을 찾아다녔다. 부인 김씨의 처갓집이 있는 보성을 향하던 중 우연히 방문한 강진의 수려한 경관과 넉넉한 인심에 반해 정착을 결심했다고 한다.

강진에 살기로 마음을 굳힌 이씨는 군청을 방문해 빈집이나 임대주택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끝에 군청직원들의 도움으로 텃밭이 딸린 70평 규모의 빈집에서 새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됐다.

이씨 부부는 “호화로운 주택에서 사는 화려한 전원생활은 아니지만 지금의 생활이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며 “진정한 전원생활이란 이런 삶이 아니겠느냐”고 활짝 웃었다. /강진=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 이형문씨의 무일푼 전원생활 조건

▲잔잔한 전원생활을 꿈꿔라=굳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전원생활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면 현지 주민들과도 쉽게 융화되는 등 장점이 많다. 또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삶도 가능하다.

▲거주지역을 잘 선택해야 한다=일단 평소 살고 싶었던 지역을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해라. 과거에는 아담한 농촌 마을이었지만, 개발이 한창 진행된 곳도 많다. 강진의 경우 주민들의 인심이 좋고,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 영랑생가 등 다양한 문화 유산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군청 등 관공서에 자문해라=살 곳을 결

정했다면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해 조언을 요청해라. 빈집 활용 신청을 하면 다양한 정보는 물론 생활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노 부부의 경우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의 금전적 지원도 가능하다.

▲‘돈’보다는 ‘정착’이 우선이다=소득보다는 농촌생활 정착에 강점을 뒀다. 농촌에서는 도시에서와 달리 특정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또 도시에서처럼 지출이 많지 않은 까닭에 경제적 부담도 덜하다.

CBS-TV가 광주전남권 교계뉴스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CBS TV

TV뉴스: 12: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TV강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TV강연: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1월 17일(수) 19:00 방송

11월 18일(목) 19:00 방송

11월 19일(금) 19:00 방송

11월 20일(토) 19:00 방송

11월 21일(일) 19:00 방송

11월 22일(월) 19:00 방송

11월 23일(화) 19:00 방송

11월 24일(수) 19:00 방송

11월 25일(목) 19:00 방송

11월 26일(금) 19:00 방송

11월 27일(토) 19:00 방송

11월 28일(일) 19:00 방송

11월 29일(월) 19:00 방송

11월 30일(화) 19:00 방송

11월 31일(수) 19:00 방송